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AAT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3. 문제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문제지와 답안지를 확인할 것
4.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5. 답안지에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나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6.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7. 문제지의 빈 공간을 연습지로 사용할 수 있음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론은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개개인의 독자에게? 전체 공중에게? 그 위에 있는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 자신에게 봉사하는가? 이 질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의 모든 철학적 논쟁에서 중심을 이룬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논쟁에 참여한 사상가들이 인간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성적 존재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루소와 같이 기성제도를 불신하고 공중(公衆)과 일반 의지의 궁극적 지혜를 믿고 확산하는 사상가들은 언론의 임무가 바로 공중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홉스와 같이 인간성 또는 전체 공중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는 사상가들은 언론을 현인이나 도덕가가 일반 사람들이 현명하고 고상하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데 이용가능한 도구로 생각한다.

(나) 버크는 혁명을 오래된 제도의 파괴로 본다. 혁명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제도가 그 목적과 활력을 잃으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만 전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제도가 낳은 지도자와 전통은 나름대로 미덕이 있다. 미용사나 양초장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급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방종과 통제할 수 없는 열정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라고 버크는 말한다.

페인은 버크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정부는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버크는 인간을 경멸하고 인민을 멸시하고 있다. 인민을 사기와 우상과 가식으로 지배해야 하는 한 때의 무리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은 개인적 권리의 문제에서 후손에 대해 어떤 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세습적인 정부를 설립할 권한이 없으며, 가질 수도 없다. 미용사와 양초장이 그리고 땅을 가진 귀족에게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성 있는 정부만이 자연과 이성과 경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페인은 주장한다.

(다) “모든 주의(主義)와 주장을 이 땅 위에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진리도 거기에 있을 터인데, 허가를 받게 하고 금령(禁令)으로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진리와 거짓이 서로 다투게 하라. 어느 누가 자유롭게 개방된 대결에서 진리가 패배하리라고 본단 말인가?”

1. (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상가와 반대하는 사상가를 (가)와 (나)에서 있는 대로 찾아 쓰고, 지지와 반대 각각의 입장에서서 오늘날의 인터넷 매체가 언론의 자유와 여론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제시문의 문맥에서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각 100자 이내) (16점)

[2]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학생 갑은 투표 행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유권자는 이념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갑은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갑이 선택한 분석대상은 보수정당 또는 진보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이다. 독립변인인 이념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에 대한 유권자 자신의 주관적 이념성향이고, 종속변인인 후보자 선택은 진보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의 여부이다.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갑은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표 1>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이념성향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	78명(81%)	96명(100%)
중도	141명(51%)	278명(100%)
보수	18명(16%)	116명(100%)

그러나 을은 갑의 추정에 회의적이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이념성향뿐만 아니라 출생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출생지역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생지역은 이념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후보자 선택 간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생지역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출생지역이 같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념성향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은 을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인은 응답자의 출생지역이고, 이는 출생지역 A, 출생지역 B 그리고 출생지역 C로 구분되었다. 유권자의 출생지역이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표 1>과 동일한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출생지역 통제

유권자 이념성향	출생지역 A		출생지역 B		출생지역 C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	12명 (80%)	15명 (100%)	44명 (81%)	54명 (100%)	22명 (81%)	27명 (100%)
중도	16명 (80%)	20명 (100%)	72명 (48%)	149명 (100%)	53명 (49%)	109명 (100%)
보수	4명 (80%)	5명 (100%)	6명 (13%)	48명 (100%)	8명 (13%)	63명 (100%)

(나) 통제된 비교에서는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다른 다양한 유형의 관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보였던 관계가 제3의 변인을 통제된 후에 사라지는 경우이다. 이는 허위관계라고 한다. 가령 미국에서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은 공화당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총기소유 금지를 찬성할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가설에 대한 두 변인만의 분석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검증이 정당선호도와 총기소유 금지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 예를 들어 성별이 통제된 후에는 사라졌다고 할 경우, 이는 허위관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제3의 변인이 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인이 여전히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독립적 관계라고 한다. 가령 제3의 변인으로 제기된 성별이 통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공화당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총기소유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이는 독립적 관계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제3의 변인 값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이는 조건적 관계라고 한다. 가령 남성 집단에서는 민주당 선호자와 공화당 선호자 간에 총기소유 금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민주당 선호자가 공화당 선호자보다 총기소유 금지에 대한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우이다. 제3의 변인 값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조건적 관계라고 한다.

2. (가)의 <표 1> 결과가 <표 2> 결과로 바뀌게 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관계를 (나)에서 골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표를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240자 이내) (16점)

[3]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오늘날 우리는 브랜드 상품, 컴퓨터 게임의 가상세계, 광고의 화려한 이미지, 매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스타 등 기호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용하고 소유하는 목적을 넘어 디자인, 상표, 이미지와 같은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핸드폰을 살 때 기능보다 디자인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 매년 외양을 바꾸는 자동차는 폐기되기 위해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란 기호를 생산하고 흡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소비사회에서 모든 것은 기호의 조작과 계산 속에서 움직인다. 기호에 둘러싸인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노동을 통해 만들어 낸 자신의 결과물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행복한 때에도 불행한 때에도 인간이 자신의 상(像)을 마주 대하는 장소였던 거울이 현대의 질서에서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쇼윈도가 출현했다. ㉠쇼윈도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기호화된 대량의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응시하는 것에 의해서 그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나) 호기심은 그 특성상 보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독특한 존재방식을 일컫는 용어로서 사물을 감지하며 만나는 인식을 표현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파악하는 순수 직관도 근본적으로는 호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기심은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있는 낯선 세계로의 지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적 관심사에 매몰된 호기심은 사물의 겉모양만을 보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일상적 호기심은 사물의 진정한 모습에 이르기 위하여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기 위하여 보려고 애쓴다. 호기심이 새로운 것을 찾는 이유는 그것에서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뛰어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은 가까이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산만하게 떠다니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일상적 호기심에 빠져있는 인간은 본래적인 자기와 사물의 본질을 놓쳐 버린다. 성찰하며 머무를 겨를도 없이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동요와 흥분에 사로잡혀 있다.

(다) 사건, 정보, 이미지의 쇄도는 인간을 사색하며 머무르게 놓아두지 않는다. 질주하듯 망막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미지들은 우리의 주의를 잡아두지 못하며 사물 곁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미지들은 그저 빠르게 시각적 자극을 흘뿌리고는 금세 퇴색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을 남기지 못한다. 사물 곁에 오래 머무는 사색만이 사물의 진정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오늘날 상품들은 매우 빨리 낡아 버린다. 새로운 버전, 새로운 모델의 등장을 위해 제품의 수명이 아주 짧아진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이 혁신의 주기를 단축시킨다. 이러한 강박은 아무것도 지속성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보와 이미지의 범람은 사색 속의 머무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완결된 작품은 없고 끝도 없이 빠르게 이어지는 온갖 버전과 변형만이 난무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삶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부산함이 아니라 ㉡지속성의 경험이다.

.....

3-1. (가)의 ㉠이 어떤 인간인지 (나)의 관점에서 서술하십시오. (120자 이내) (10점)

3-2. (다)의 ㉡을 얻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 (다)의 문맥에서 찾아 서술하십시오. (60자 이내) (6점)

[4]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神)이 카인에게 동생 아벨은 어디 있다고 물었다. 카인은 화를 내며 의문형으로 답했다. “내 동생이 내 책임입니까? 내가 알게 됩니까?” 이러한 카인의 의문형 답은 부도덕의 기원을 말해준다. 내 형제는 당연히 내 책임이다. 내가 형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형제의 안녕과 복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내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도덕적일 수 있다. 내가 그 의존성에 의문을 던지는 순간, 왜 형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순간, 나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 되며 더 이상 도덕적일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카인의 의문형 답이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이웃의 안녕에 신경 써야 하는지 반문하고, 왜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경제 영역에서 국가 역할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자본은 노동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노동은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으로서 매력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과거의 유희(遊休) 노동력은 장차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예비군이었고, 국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노동예비군의 건강과 복지를 돌볼 필요가 있었다. 국민의 대규모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필요시 산업역군으로 투입토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국가가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과거에 경제의 주요 단위는 국가였다. 노동과 자본의 만남은 한 국가의 고정된 장소에서 이뤄졌다. 어느 한쪽도 쉽게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없었고, 자본과 노동은 ‘국적’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 산업구조는 더 이상 대량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생산 공정에서 노동력 삭감의 계기가 된다. 첨단투자가 늘어날수록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인건비 삭감으로 측정되고, 해고를 뜻하는 구조조정은 효율적인 경영기법으로 간주된다. 실직자들은 더 이상 노동예비군이 아니다. 한 번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국가는 더 이상 중요한 경제 단위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탈(脫) 국가적이다. 자본은 국가 단위를 벗어나 작동하며, 각국 정부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축소, 규제완화와 함께 유연한 노동시장 보장을 제시한다. 노동은 범(汎) 지구적 대체재이다. 국내의 빈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력으로 재빨리 채워진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직장생활의 불확실성이다. 예전에 포드사(社)에서 첫 직장을 얻은 젊은이는 별일 없는 한 거기에서 한 평생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정은 급변했다. 누구라도 예고 없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직장생활의 시간 단위는 점점 짧아진다. 이러한 직업적 불확실성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현상이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생계를 파탄 내고, 가족 해체를 불러올 수 있는

일종의 재앙이다. 이런 가공할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전망은 강한 개인화를 촉진한다. 누가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은 점차 모호해지고 낯선 말이 된다. 두려움, 불안, 걱정은 홀로 삭여야 한다.

이렇듯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단편적이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는 배려와 책임의 정신이 싹트고 뿌리 내리기 힘들다. 하지만 저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사는 방법을 찾기로 쉽지 않다. 직장은 납득할 수 있는 공존의 법칙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공동의 주거지가 아니라 며칠 밤 머무르고 나면 급히 떠나는 야영지로 간주된다. 우리 시대는 약한 결속력의 시대이다.

4-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세 가지 이상 찾아 서술하시오. (200자 이내) (12점)

4-2.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일하도록 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으로 제안하려는 논의가 있다.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자리 나누기’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4점)

[5]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돼지는 그 이름을 옳게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실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이 말에 ‘돼지’라는 음(音)이 더러움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사실상 그 음은 자의적이며, 거기에 불결함이라는 본질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단어가 정확하게 돼지의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상이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그 단어를 ‘두더지’나 ‘다람쥐’와 혼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개’를 ‘돼지’라고 불렀더라면 ‘닭 쫓던 돼지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이 생겨났을 것이다. [㉡] 이와 같이 한 단어의 발화된 음성(기표)과 그 의미(기의)는 자의적 결합이다.

이 사실은 놀랍게도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데리다라는 학자는 이 발견이 그렇게 늦어졌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소리글자, 즉 표음문자의 특성을 탐구했다. 표음문자는 상형문자와 달리 문자가 곧 말소리이기 때문에 읽는 순간 시각적 형상 기호가 개입되지 않고 의미가 바로 파악된다. [㉢] 그러면서 표음문자는 점점 소리에 민감해지고, 모음 또는 자음과 같은 말소리의 교체에 의해 의미를 구분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단어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존재한다는 청각적 착각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음향 착각’이 오랫동안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자의적이며 기의는 그 기표와 다른 것들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뿐임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해 기표는 기표일 뿐, 그 자체에 의미가 직접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는 맥락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도 사람들은 ‘개[狗]’라는 뜻이 ‘개[gæ]’라는 음에 본래부터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는 기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기표의 독립성을 망각한 것이다.

한편 언어는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 간의 자의성을 잃고, 기의는 기표와의 결속을 강화한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기의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관념 체계를 구축한다. 예컨대 ‘풀[草]’이라는 의미(기의)는 반드시 ‘풀[pul]’이라는 이름(기표)으로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언어 체계에 의해 서만이 비로소 실체에 대한 접근과 기술이 가능해진다. [㉤] 이렇게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언어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어느 순간, 그 언어의 관념 체계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기의가 기존에 정해진 그 기표 외에 다른 기표로 불린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규정되고 개념화된 논리 체계에 맞춰서, 사실상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세계를 관습적 언어로 규정하려고 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언어가 세계를 규정하는 원리를 역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재를 특정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반대이다. 이러한 언어의 작용들은 우리의 언어생활에 미묘하게 작용하여 잘 간파되지 않는다.

5-1. 제시문의 ㉠~㉥ 중에 다음 A~D의 예들이 들어가기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8점)

예	A	B	C	D
들어갈 곳(㉠~㉥)				

- A : 예컨대 유력 신문이 “테러리스트들이 오늘 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썼다고 하자. ‘테러리스트’ 대신에 ‘반부패 저항군’이나 ‘자유수호군’으로 바꾸면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신문의 언어는 어떤 실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이다.
- B : 다시 말해서 ‘개[gæ]’라는 단어는 개와 같은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리가 넷인 개과의 동물을 지시해야 할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단지 그 기표가 개, 개, 개, 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狗]’를 가리키는 것이다.
- C : 예컨대 같은 설경(雪景)을 보는데도 이누이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눈을 본다. 그 이유는 이누이트의 언어에는 눈을 묘사하는 단어가 50가지가 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 D : 예컨대 ‘잘 했다’라는 발화는 칭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렇듯 하나의 언어 표현이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5-2. 다음 시의 밑줄 친 부분은 시적화자 ‘나’의 심경 변화가 드러나 있다. ‘나’는 ‘꽃’과 ‘잡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곧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는지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250자 이내) (12점)

민지의 꽃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다섯 살 배기 딸 민지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게 뉘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 애의 말 한 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6]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은 외부 세계를 알아가는 주요 과정이다. 그 방식은 조각된 감각 자료를 분류하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일반적 개념과 규칙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사물의 다양하고 고유한 성질을 꾸준히 단순화하는 것이다.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은 주어진 대상의 몇몇 중심적 특성들에 주목한다.

예술은 이러한 단순화와 일반화를 용인하지 않는다. 사물의 보편적 성질이나 원인을 추궁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예술은 직관을 통해 사물의 다양한 형상을 드러낸다. 그 형상은 사물이 갖고 있는 참되고 순수한 모습이다. 그런데 그 형상은 단순히 자연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발견한 사물의 숨은 아름다움이다. 예술가는 그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사람이다. 예술가는 과학자가 사실 혹은 자연 법칙의 발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형상의 발견자이다.

과학은 자연현상들을 더듬어, 거기서 제1원인과 일반 법칙을 찾아내 질서를 추구한다. 하지만 예술은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직관을 통해 세계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관심을 갖는다. 예술의 궁극적 지향인 미(美)는 보편적 과학 법칙과는 달리 사물에 대한 ‘공감적 시선’에서 나온다. 예술은 단지 주어진 현실의 기계적 재현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 방법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동반한 재현이다. ‘불 줄 안다’가 예술가의 최고의 자질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은 이 점에서 옳다. 위대한 화가는 사물과 자연의 형상을 보고, 위대한 극작가는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보며, 위대한 시인은 모호한 열정과 정념에 형상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의 ‘보는 능력’은 객관적인 사물 그 자체의 성질과 예술가의 주관적 미의식이 지속적으로 종합되는 구성적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도 한갓 사실 수집인 것만은 아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점에서는 구성적 차원이 불가피함을 간파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물리학자가 달성하려는 지고(至高)의 과업은 일련의 보편적 기본법칙에 도달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법칙으로부터 순수한 연역에 의하여 우주를 규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칙에 도달하는 논리적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경험의 공감적 이해에 기반을 둔 직관만이 그리로 인도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과학이 본성상 예술과 상반되는 경향이 있지만 방법론상 예술과 공유하는 면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로노프스키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자연의 복제가 아니며 그것의 재창조다.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징과 은유는 과학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통찰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세계를 한낱 공식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과학의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예컨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은 단 하나의 공식으로 우주의 물리적 구조 전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며, 세계를 물리적 구조와 등가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현실이 공식으로 남김없이 설명가능하고 예측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의 빈곤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과학의 이런 인식은 예술이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하나의 착각임이 드러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물의 풍부함을 드러내는 예술 앞에서 과학의 추상성은 사물의 다양성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태양은 날마다 새롭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은 과학자에게는 참이 아닐지 모르나 예술가에게는 옳은 말이다. 예술가는 사물을 관통하는 법칙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사물의 양상이 지닌 무진성(無盡性)을 밝혀 드러내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평범한 사물들 속의 진정한 형상을 보도록 해준다. 작고 하찮은 사물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이 가진 큰 특권의 하나이며 또한 가장 강한 매력이다.

6-1. 과학이 놓치지만 예술이 삶과 자연에서 포착하는 것 세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내고,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예술가가 구사하는 ‘보기(seeing)’의 방법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12점)

6-2. 제시문은 과학과 예술이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4점)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문제 해설

인문사회계열

1. AAT의 목적과 출제 방향

경북대학교가 실시하는 인문사회계열 AAT(진학적성검사)는 이 방면의 대학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적 역량, 즉 텍스트를 읽고, 그에 개진된 사실적 정보와 의견을 이해, 분석, 비판하고 종합하여 제3의 창의적인 의견을 전개하는 능력의 함양과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학업적성검사(Academic Aptitude Test, AAT)는 학생들이 여러 경로의 선수학습을 통하여 축적한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의 양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물론 AAT는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 판단하려고 한다. 다만 AAT에서 측정하려는 지적 역량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지(既知)의 사실에 대한 다양하고 특별한 지식의 대량 축적이 아니라, 고교 수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기본개념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 여부, 또 이를 응용하여 주어진 과제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침착하게 과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지 여부이다. 즉 AAT는 사태 파악, 문제해결을 위해 발휘하는 지적 순발력과 응용력의 측정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예년도에 비해서 이해, 분석, 비판, 추론의 결과를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역량이 좀 더 많이 요구되었다.

2. AAT의 주제 및 출제 배경

경북대학교 AAT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나 사회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주제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이번 AAT 문제는 아래의 6개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문에 대한 독해 및 분석 능력, 논리적 추론 및 개념 적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1]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 정치사상의 현대적 변용
- [2] 정치현상에 대한 계량 및 통계적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 [3] 현대 소비 사회에서의 인간 존재 양태에 대한 성찰
- [4]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 [5] 언어와 인식의 관계에 대한 성찰
- [6] 과학과 예술의 차이와 궁극적 합일에 대한 성찰

3. AAT 제시문 및 문제 유형

올해 실시된 AAT 문제는 예년과 같이 다양한 문헌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주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 단답형 또는 50자~250자 이내의 약술형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제시문은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허버트 알철의 『현대 언론사상사』, Philip H. Pollock III의 *The Essentials of Political Analysis*, J.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지그문트 바우만, 『방향하는 개인들의 사회 -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 『인간이란 무엇인가-문화철학서설 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에서 발췌하여, 고교 교과서 수준의 가독성을 발휘하도록 재정리한 것이다.

4. 교과서 관련 내용

이번 AAT 문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으로서 그 주제 및 제시문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인문·사회계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강조할 사항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개념이 직접 사용되거나, 깊이 연관된 자료를 제시문으로 제공하는데 유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면 AAT 문제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논술 주제 및 제시문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번 (주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 정치사상의 현대적 변용)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언론자유와 윤리’, 270-272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대중매체’, 190-197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대중매체의 유형과 특징’, 203-206쪽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정체성’, 172-182쪽.
- 고등학교 『국어(하)』(창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262-275쪽.
- 고등학교 『철학』(대한교과서주식회사), ‘자유는 무엇인가’, 186-188쪽.

2번 (주제: 정치현상에 대한 계량 및 통계적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 38-45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24-37쪽.
- 고등학교 『법과 정치』(천재교육), ‘정치 참여와 선거’, 56-63쪽.

3번 (주제: 현대 소비 사회에서의 인간 존재 양태에 대한 성찰)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미래엔), ‘문명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218-219쪽.
- 고등학교 『철학』(대한교과서주식회사), ‘실존의 확인’, 125-128쪽; ‘정보시대의 윤리’, 175-176.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정체성’, 172-182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대중매체의 유형과 특징’, 203-206쪽

4번 (주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 고등학교 『사회·문화』, 4. 사회계층과 불평등, 2.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1. 빈곤문제. 149쪽~151쪽.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IV.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3. 사회 복지 문제와 윤리, 206쪽~215쪽.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IV. 함께 사는 씨줄과 날줄, 2. 물질적 삶의 조건, 경제, 92쪽~111쪽.
- 고등학교 『철학』, V. 나와 너, 그리고 우리, 2.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2) 평등이란 무엇인가, 188쪽~193쪽.

5번 (주제: 언어와 인식의 관계에 대한 성찰)

-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pp.26-29.
- 윤여탁 외(2012), 중학교 『국어 ①』, ‘언어의 특성’ 단원, 미래엔
- 이도영 외(2013), 중학교 『국어 ②』, ‘언어의 특성과 우리말의 음운 체계’ 단원, 창비.
- 김태철 외(2013), 중학교 『국어 ④』, ‘의미를 담아서’ 단원, 민지의 꽃, 비상.
- 남수인 역(2001), 글쓰기와 차이(자크 데리다 저), 동문선.
- 김보현 역(1996), 해체(자크 데리다 저), 문예출판사.
- 김현권 역(2012), 일반언어학 강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6번 (주제: 과학과 예술의 차이와 궁극적 합일에 대한 성찰)

- 고등학교 『국어(하)』(창비), ‘빛의 마술사-모네와 고흐’, 196-207쪽.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지학사) ‘과학 분야의 글 읽기’, 200-217쪽, ‘예술 분야의 글 읽기’, 218-235쪽.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과학 탐구와 윤리’, 132-141쪽, ‘예술과 윤리’, 250-259쪽.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미래엔) ‘아름다움의 세계와 상상의 진실’, 50-77쪽, ‘사물의 숨은 질서를 찾아서’, 164-197쪽.
- 고등학교 『철학』(대한교과서주식회사) ‘과학적 인식’, 72-85쪽, ‘자연미와 예술미’, ‘아름다움’, ‘철학과 창조’ 229-243쪽.

5. 문제 해설

■ 1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와 (나)는 허버트 알철의 ‘현대 언론사상사’에서 발췌한 것이며, 제시문 (다)는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의 한 대목이다. 제시문 (가)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에서 다른 사회적 가치보다 언론자유를 우선적으로 여겨 무제한의 자유를 지지하는 쪽과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쪽의 사상적 뿌리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루소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공중을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홉스는 인간을 비이성적 존재로 공중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본다. 제시문 (나)는 민주주의자 토마스 페인과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일부분을 제시하는데,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주장하는 버크의 견해에 대한 페인의 비판을 담고 있다. 여기서 버크는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를 균등 분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페인은 버크의 주장이 인민을 차별하는 귀족주의적 발상이며, 권리는 천부적인 것임을 재천명한다. 제시문(다)는 여론의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아레오파지티카의 그 유명한 구절이다. 자유롭게 주의 주장을 표현하게 내버려두면 내적인 자유경쟁을 거쳐 진리가 이긴다는 내용이다. 여론의 자유시장이 사회적 의사결정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의 출처라고 할 수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언론자유와 윤리’, 270-272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대중매체’, 190-197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대중매체의 유형과 특징’, 203-206쪽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정체성’, 172-182쪽.
- 고등학교 『국어(하)』(창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262-275쪽.

고등학교 『철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자유는 무엇인가’, 186-188쪽.

▶ 문제 해설

이 문항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인간관이 언론의 자유와 여론형성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제시문을 통해 이해한 다음, 이를 인터넷 매체의 성격과 연결시켜 최종적으로 인터넷 매체가 언론의 자유와 여론형성에 대한 영향을 추론하는 것이다. 취지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각 제시문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기본적인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풀이의 논리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의 내용은 인간 존재를 이성적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상과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성적 존재로 보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비이성적 존재로 보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추론을 하는 것이 문항이 요구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면 조건 없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페인의 주장과 권리에겐 그만한 자격이 따른다는 버크의 주장이 대립한다. 따라서 나)까지 읽으면 <이성적 존재-최대한의 언론자유>, <비이성적 존재-언론자유에 적절한 제한>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다)는 여론의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대목인데,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전제한다.

따라서 다)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상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가정하는 루소와 페인, 반대하는 사상은 인간을 비이성적 존재로 가정하는 홉스와 버크이다.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 인터넷이 언론자유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은 제시문에서 추론한 내용과 제시문에 없는 인터넷 매체의 매체성격을 연결시키는 문제이다. 인터넷 매체의 동시성, 현재성, 쌍방향성, 편재성 등의 매체속성은 고교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된 상식이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고 최대한의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사상가와 비이성적 존재로 보고 제한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루소와 버크의 입장에 서면 인터넷 매체는 ‘이성적 존재인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여론의 자유시장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홉스와 버크의 입장에 서면 인터넷 매체는 비이성적인 대중에게 과도한 언론 자유를 부여해 무분별한 주장이 난립하게 함으로써 올바르고 지혜로운 주장을 약화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모범답안(예시)

지지하는 사상가 : (루소, 페인) : 인터넷 매체는 이성적 존재인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여론의 자유시장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100자 이내)

반대하는 사상가 : (홉스, 버크) : 인터넷 매체는 비이성적인 대중에게 과도한 언론 자유를 부여해 무분별한 주장이 난립하게 함으로써 올바르고 지혜로운 주장을 약화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100자 이내)

■ 2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양적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 주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이고, 가설은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성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후보자 선택 간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볼 때, 유권자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 중도, 보수로 갈수록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제변인인 출생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통제변인인 출생지역 변인의 값이 출생지역 B와 출생지역 C일 경우, <표 1>에서 보였던 바와 같이,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 중도, 보수로 갈수록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제변인의 값이 출생지역 A인 경우 <표 1>에서 보였던 바와는 달리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이던, 중도이던, 보수이던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문 (나)는 Philip H. Pollock III의 *The Essentials of Political Analysis*에서 제시된 관계의 유형과 예를 번역하여 일부 수정한 글로서, 통제된 비교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 허위관계, 독립적 관계, 조건적 관계에 대한 설명과 예가 제시되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 38-45쪽.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24-37쪽.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정치 참여와 선거’, 56-63쪽.

▶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가)의 지문과 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나)에서 제시된 유형을 추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자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후보자선택 가설이 제시되었고, 경험적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가

제시되었다. <표 1>은 가설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이고, <표 2>는 통제된 상태에서의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1>에서는 유권자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 중도, 보수로 갈수록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 2>에서는 통제변인인 출생지역 변인의 값이 출생지역 B와 출생지역 C일 경우, <표 1>에서 보였던 바와 같이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 중도, 보수로 갈수록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제변인의 값이 출생지역 A인 경우, <표 1>에서 보였던 바와는 달리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이던, 중도이던, 보수이던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서는 통제된 비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 허위관계, 독립적 관계 그리고 조건적 관계에 대한 설명과 예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의 <표 1> 결과가 <표 2> 결과로 바뀌게 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관계를 (나)에서 골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표를 분석하여 서술하시오.”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면 된다. (조건적 관계) <표 1>에서는 유권자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 중도, 보수로 변화함에 따라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 2>에서는 통제변인인 출생지역의 값에 따라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출생지역 B, C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출생지역 A가 있었다. (나)에서는 이와 같이 통제변인의 값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조건적 관계라고 했다.

▶ 모범 답안(예시)

(조건적 관계)

<표 1>에서는 유권자 이념성향의 범주가 진보, 중도, 보수로 변화함에 따라 진보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퍼센트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 2>에서는 통제변인인 출생지역의 값에 따라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출생지역 B, C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출생지역 A가 있었다. (나)에서는 이와 같이 통제변인의 값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조건적 관계라고 했다.

■ 3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J.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에서 다루어진 중심주제, “기호의 소비”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현대의 소비현상은 상품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체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호소비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은 일상적으로 대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기호의 체계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을 예를 통해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 자신과 사물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거울과 쇼윈도의 비교이다. 거울은 인간과 사물을 상(像)을 통해 재현하는 장소로서 여전히 실제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쇼윈도는 인간을 재현하고 있지 않고 기호화된 사물을 드러내며, 이것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기호의 질서에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M.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일상적 인간의 모습을 분석하는 개념들 중에 “호기심”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호기심은 보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존재방식으로 이해된다. 호기심은 인간에게 진리 인식과 낮은 세계에 대한 지향을 위한 계기이기도 하지만 일상적 관심사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때 호기심은 사물의 진정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산만하게 떠다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호기심에 빠진 인간은 본래적인 자기와 사물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처럼 호기심은 인간의 실존적 고찰에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는 양 측면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서 제시된다.

제시문 (다)는 한병철의 『시간의 향기』에서 정보와 이미지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대인은 파편화되어 급속히 흘러가는 정보와 이미지의 쇄도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사물의 본래적 모습을 성찰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와 정보의 조밀화(稠密化)는 아무것도 지속성을 창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끌며, 이는 완결된 작품도 없이 끝도 없이 새로운 버전과 변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증을 일으킨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지속성의 경험으로 복귀할 것을 제안하고 삶의 의미를 충전시키기 위해 사물 곁에 오래 머물며 사색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미래엔), ‘문명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218-219쪽.

고등학교 『철학』(대한교과서주식회사), ‘실존의 확인’, 125-128쪽; ‘정보시대의 윤리’, 175-176.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정체성’, 172-182쪽.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대중매체의 유형과 특징’, 203-206쪽.

고등학교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 ‘소비자 윤리’, 166-167쪽.

▶ 문제 해설

본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이미지, 기호,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인간의 존재방식과 연결하여 규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려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기호가 무엇이며, 이것을 소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거울과 쇼윈도의 차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울은 사물의 상(像)인데 반하여 쇼윈도는 더 이상 사물의 재현이 아니라 기호화된 사물을 전시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소비하면서 현대인은 자신을 분류하고 차별화하면

서 살고 있다. 결국 쇼윈도는 인간 자신의 모습과 실재하는 사물이 기호의 체계 속으로 흡수된 현대 소비사회의 단면을 나타낸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쇼윈도의 함의를 제시문 (나)에 나오는 호기심의 현상과 연결시켜 답하는 것이다. 호기심은 보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존재방식으로서 그 자체는 진리인식과 낮은 세계로의 지향을 나타내지만 일상적인 것에 매몰될 경우 사물의 진정한 모습과 그 존재에 이르려고 보기보다는 겉모습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 속에 빠져 자기 자신과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제시문 (다)는 이처럼 기호의 소비와 일상적 호기심의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이미지, 정보, 기호의 범람과 빠른 변화는 사람들이 머물러 사색하는 것을 방해한다. 새로운 버전과 모델은 지속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문맥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도록 제시문에는 계속해서 지속성의 경험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물 곁에 머물러 사색할 것에 대한 암시가 여러 번 주어졌다.

▶ 모범 답안(예시)

1. (쇼윈도 앞에 선 인간은) 사물의 진정한 모습에 이르려고 하기 보다는 겉모양만을 보기 위하여 보며, 새로운 것만을 찾아 산만하게 떠다니다 본래적인 자기 자신과 사물의 본질을 놓쳐 버리는 일상적 호기심에 빠져있는 인간이다. (108자)

2. 지속성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사물 곁에 오래 머물며 사색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48자)

■ 4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지그문트 바우만의 『방향하는 개인들의 사회 -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홍지수 옮김, 봄아필, 2013) 중 제1장 “노동의 흥망성쇠”(33쪽~53쪽), 제5장 “내 동생이 내 책임입니까?”(119쪽~137쪽)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바우만은 오늘날 인간의 삶이 급변하는 경제적, 정치적 조건 하에서 어떻게 분절되고 개인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바우만에 따르면, 현대는 산업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실업자 집단은 더 이상 노동예비군이 아니게 되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돌봐야 할 국가적 필요가 약화되었고, 노동과 자본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활동 단위로서의 국가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노동은 범(汎) 지구적인 대체재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직업적 불확실성이 초래되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전망은 강한 개인화를 초래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 고등학교 『사회·문화』, 4. 사회계층과 불평등, 2.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1. 빈곤문제, 149쪽~151쪽.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IV.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3. 사회 복지 문제와 윤리, 206쪽~215쪽.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IV. 함께 사는 씨줄과 날줄, 2. 물질적 삶의 조건, 경제, 92쪽~111쪽.
- 고등학교 『철학』, V. 나와 너, 그리고 우리, 2.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2) 평등이란 무엇인가, 188쪽~193쪽.

▶ 문제 해설

4-1
사람들이 자신이 왜 이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가 왜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이유를 제시문에서 세 가지 이상 찾아 쓰는 것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임.

4-2
직업적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존의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긍정적 의미를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적는 것으로 제시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임.

▶ 모범 답안(예시)

4-1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실업자 집단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고용예비군이 아니게 되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돌봐야 할 국가적 필요가 약화되었고, 노동과 자본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활동 단위로서의 국가 역할이 약화되었으며, 노동은 범 지구적인 대체재가 되었다. 이로부터 직업적 불확실성이 초래되었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은 강한 개인화를 초래했다. (193자)

4-2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수를 늘려 해고 가능성을 줄이고 재취업 가능성을 증진함으로써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 정신을 되살린다. (74자)

■ 5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기호의 자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호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후기 구조

주의자의 입장에서 자의성에 대한 자각이 철학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호의 자의성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념화 한 사람은 Ferdinand de Saussure이다. 그의 학설은 그가 죽고 나서야 제자들에 의해 『일반언어학 강의(1915)』로 출간되었다. 그는 언어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직관을 가진 언어학자로, 그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점은 일반 언어들에 가진 보편 특성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체계주의 언어학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그의 이론은 후대 언어학과 문헌학은 물론, 문화기호학 등의 분야에서 구조주의가 꽃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후기 구조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 이 글은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언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자의성(恣意性)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자의성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후기 구조주의자 Jacques Derrida가 자의성을 재해석하는 발전적 논의를 보여준다. 그는 자의성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이라는 점이 쉽게 망각됨으로써 언어가 인간의 인식 체계와 삶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되었다. 그 결과, 자의성의 망각은 기의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래부터 기표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기의(의미)를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로고스(제시문에서는 그 의미를 뚜렷이 하기 위해 ‘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중심주의를 낳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로고스, 즉 논리 혹은 관념 체계로서의 언어 체계가 확립되면 기의와 기표 간의 결속이 강해져서, 의미로 가득 찬 어떤 세계를 기술할 때조차도 기존의 관습대로 규정하고 그 언어 체계 내의 정의된 기표를 고집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총 4개의 형식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단은 ‘왜지’의 예를 들어 자의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은 이러한 자의성이 쉽게 간과되는 이유로서 ‘음향착각’을 설명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문단은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언어는 기의가 기표를 결정하는 기의 중심의 관념 체계를 형성하여 세계를 그 틀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네 번째 문단은 논의의 마무리로, 이러한 고정관념이 언어를 생산할 때뿐만 아니라, 언어를 수용할 때도 생겨날 수 있음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내용

<1> 2011년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번, (2)번

(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깊이 이해하면 언어를 단순한 도구나 매체로 보지 않고 학습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언어의 본질에서는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을 다루고, 언어의 기능에서는 언어의 지시적·정보적·친교적·정서적·명령적 기능 등을 다룬다.

(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글에는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도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에 사용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필자의 의도, 글의 내용, 글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글에 사용된 자료의 형태, 제시 방법, 제시 순서 등을 분석하고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문자로 된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에 사용된 자료도 포함할 수 있다.

<2> 2011년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독서와 문법’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4)

(4) 언어가 갖는 특성인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언어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언어의 기호성은 언어가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라는 특성이며, 이때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창조성은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속성이며, 규칙성은 언어가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성은 언어가 개인이 아닌 언어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것,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언어의 이런 특성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3> 2011년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문학’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1), (5)번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

(5)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한다.

문학 활동은 인간의 본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상상하거나 체험한 내용 중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별하고 이를 준거로 삼아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내용과 표현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과 방법에 맞는 형식과 맥락, 매체 등을 선택하여 재구성하거나 창작하고 이를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자신의 창작과 다른 학생의 창작을 비교하며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 교과서 및 참고문헌

-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pp.26-29. (어느 출판사라도 무방함)
- 윤여탁 외(2012), 중학교 『국어 ①』, ‘언어의 특성’ 단원, 미래엔
- 이도영 외(2013), 중학교 『국어 ②』, ‘언어의 특성과 우리말의 음운 체계’ 단원, 창비.
- 김태철 외(2013), 중학교 『국어 ④』, ‘의미를 담아서’ 단원, 민지의 꽃, 비상.

- 남수인 역(2001), 글쓰기와 차이(자크 데리다 저), 동문선.
- 김보현 역(1996), 해체(자크 데리다 저), 문예출판사.
- 김현권 역(2012), 일반언어학 강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 문제 해설

5-1

이 문제는 글을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고, 글의 주요 정보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독해 문제이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비어 있는 ㉠~㉤ 중에 A~D의 들 중 적절한 예시를 넣게 되면 글의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글 내용의 이해가 보다 쉽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며, 동시에 그 문맥에 주어진 예시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빈 곳이 6개인데 4개를 찾아 넣도록 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맥에 따라, A는 신문의 언어가 특정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것은 ㉤에, B는 ‘개’라는 단어의 자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다시 말해’라는 담화표지를 활용하여, ㉡에, C는 인간은 각기 자신의 언어로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 간에는 인식한 것이 다르다는 내용이므로 ㉢에, D는 발화 맥락에 따라 같은 형식의 언어 표현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에 각각 넣을 수 있다.

5-2

이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시의 감상과 연결 짓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독해력과 동시에 문학작품에 대한 창조적 감상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 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은 제시문 중 3번째 문단, 4-6줄, 9-15줄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부분의 중심 내용을 추려낸 후, 이 시의 밑줄 친 부분에 유추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시적화자 ‘나’가 ‘민지’라는 다섯 살 여자아이와 대화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시적화자는 ‘민지’가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등’의 잡초를 ‘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것은 잡초다’라고 수정해 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이 기존의 언어적 관념 체계에 얽매어,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순수한 세계를 자신의 기성화된 언어적(논리적) 관념 체계에 맞춰서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시적화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제시문에 따르면 시적화자 ‘나’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기표와 기의 간의 자의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꽃’은 반드시 ‘꽃’이라는 이름으로, ‘풀’은 반드시 ‘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적화자 ‘나’는 ‘잡초’라는 의미(기의)는 기존에 정해진 ‘잡초’라는 기표로 불려야 하며, 그 외에 다른 기표인 ‘꽃’으로 불린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꽃’이나 ‘잡초’라는 이름은 각각 그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일 뿐인데, 기존에 규정되고 개념화된 논리 체계에 맞춰서 세계를 관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자신이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전후 내용을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250자 이내로 통일성있게 잘 표현해야 한다.

▶ 모범 답안(예시)

1-1.

예	A	B	C	D
들어갈 곳(㉠~㉤)	㉤	㉡	㉢	㉣

1-2. [300자 이내 답안]

시적화자 ‘나’는 ‘잡초’라는 의미(기의)는 기존에 정해진 ‘잡초’라는 기표로 불려야 하며, 그 외에 다른 기표인 ‘꽃’으로 불린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꽃’이나 ‘잡초’라는 이름은 각각 그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일 뿐인데, 기존에 규정되고 개념화된 논리 체계에 맞춰서 세계를 관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자신이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50자 이내)

■ 6번 문제

▶ 문제 해설

제시문은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가 1944년 저술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문화철학서설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최명관 옮김, 1988)에서 과학과 예술을 비교하는 논의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문화철학자 카시러는 이 책에서 상징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문화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은 과학과 예술을 비교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의 성격을 예술의 그것에 비추어 그 특징과 한계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관련하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과학사상가 브로노브스키(Jacob Bronowski)의 말을 추가하여 제시문을 다시 구

성하였다.

과학이 자연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자연 현상의 원인, 원리, 법칙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첫 문단에서는 과학의 방법과 목표를 말한다. 두 째 문단에서는 과학과 대비되어 드러나는 예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예술과의 비교로 역으로 과학의 특징들 또한 더 두드러진다. 과학의 주요한 특징은 세 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 다음 다시 여기에 대비한 예술의 특징들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면, 예술은 대상의 성질과 원인을 추궁하지 않고 단순화와 일반화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며 과학과 대비한다. 예술은 직관적, 시각적이다. 직관을 통해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어준다. 예술은 직관의 풍부성과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성을 추구한다. 예술은 공감적 시선을 가지고 사물 양상의 무진성을 드러내려 한다.

네 째 문단에서는 아인슈타인과 브로노브스키의 말을 인용하여 이번에는 과학과 예술 사이의 방법론적 공통점을 드러낸다. 예술에서 자주 강조되는 직관과 영감, 공감적 이해가 실제로는 과학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반전이 나타난다. 특히, 카시러와 아인슈타인이 예술과 과학에서 창조성의 근원으로 각각 ‘공감적 시선(sym pathetic vision)’과 ‘공감적 이해(sym pathetic understanding)’라는 사실상 동일한 덕목을 지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제시문은 여섯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며 과학과 예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단에서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이 나타난다. 전체적인 글의 전개는 과학의 특징을 예술의 그것으로 비추어보며 과학의 특징들을 더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고 또한 비교를 통해 과학의 한계를 드러내어 준다. 반면,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예술의 특징 또한 잘 포착된다.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국어(하)』(창비), ‘빛의 마술사-모네와 고흐’, 196-207쪽.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지학사) ‘과학 분야의 글 읽기’, 200-217쪽, ‘예술 분야의 글 읽기’, 218-235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과학 탐구와 윤리’, 132-141쪽, ‘예술과 윤리’, 250-259쪽.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미래엔) ‘아름다움의 세계와 상상의 진실’, 50-77쪽, ‘사물의 숨은 질서를 찾아서’, 164-197쪽.

고등학교 『철학』(대한교과서주식회사) ‘과학적 인식’, 72-85쪽, ‘자연미와 예술미’, ‘아름다움’, ‘철학과 창조’ 229-243쪽.

▶ 문제 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 문장에 대한 분석, 답안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한 후 문장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6-1

문항은 실재에 대해 과학이 놓치지만 예술이 포착하는 특징들을 묻고, 더하여 예술가들은 어떤 식의 ‘보는 방법’으로 이러한 포착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묻고 있다.

그 특징들은 둘 째 문단과 세 째 문단,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자연 형상의 발견,’ ‘세계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관심,’ ‘사물 양상의 무진성을 밝혀 드러내는’ 이라는 식이다. 세 째 문단에서 구체적인 예술형식에 대해서 특징으로 나타난 ‘사물과 자연의 형상을 보고’,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보며’, ‘모호한 열정과 정념에 형상을 부여’라는 표현들도 예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보기’의 방법은 두 째와 세 째 문단에 표현된 다음 문장들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술은 직관을 통해 다양한 사물의 형상을 드러낸다.” “예술의 궁극적 지향인 미는 사물에 대한 공감적 시선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직관’과 ‘공감적 시선’을 예술가가 구사하는 ‘보기’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짧은 답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험자는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한 후 문제에서 요구한 주요 내용들이 드러나도록 적절한 문장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6-2

문항은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을 묻고 있다.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은 네 째와 다섯 째 단락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아인슈타인과 브로노브스키의 언급에서 그 공통점을 읽을 수 있다. 과학과 예술 모두 ‘구성적’ 혹은 ‘자연의 재창조’이며 ‘직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혹시 수험생이 예술은 ‘공감적 시선’을 필요로 하고 과학은 마찬가지로 ‘공감적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이들 사이의 사실상 동일성을 지적한다면 이것 또한 아주 좋은 답변이다.

▶ 모범 답안(예시)

6-1

과학이 놓치지만 예술이 포착하는 것에는 자연 형상을 발견하는 것, 세계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관심을 갖는 것, 사물 양상의 무진성을 밝혀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술가는 사물에 대한 공감적 시선과 직관을 활용한다. [122자]

6-2

예술과 과학은 모두 공감과 직관에 의존하고 구성적 과정을 통해 자연을 재창조한다. [45자]